

이탈리아에 중국산의 조악한 섬유제품이 증가

요즘 이탈리아에는 중국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중국산 섬유제품이 곧잘 눈에 띈다. 값이 워낙 싸서 잘 팔린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들로부터 품질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이러한 현상의 책임은 중국 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섬유품 검사 제도가 일본과 같은 엄격한 검사제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생산자가 섬유품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품질에 관한 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에 합격하여 출하된 후에라도 불량품이 발생하면, 생산자가 불량품을 선별하여 다시 검사를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을 다시 하거나 또는 불량품을 회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본에서는 중국에서 일본계 공장이 생산한 모든 섬유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할 때 일본의 엄격한 검사, 검단(檢綴), 검품(檢品)제도에 따르고 있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중국에 있는 일본계 공장에서는 생산되는 섬유제품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여러 섬유 검사기관이 중국의 여러 세관 검험국(檢驗局)내에 검사원을 상주시키고, 검험국의 시설을 같이 사용하면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섬유제품을 일본의 기준으로 검사하고 있다.

검사에는 발취(拔取)검사와 전수(全數)검사가 있는데, 일본의 검사 방법과 판정기준에 따라 실의 검사나 직물류나 의류 등을 비롯한 각종 봉제품을 적정 수량 발취하여 각종 이화학적 검사와 품위 등의 육안 검사를 한다. 이화학적 검사는 일부 시험 검사 시설에 의한 검사로서 파괴(破壞)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발취검사 만으로는 모든 제품의 품질을 인증하기 어려울 때

에는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직물의 검단은 품위나 각종 가공공정의 하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되며, 봉제품 등의 검품에서는 재단이나 봉제의 각종 하자나 옷으로서의 균형, 퍼커링(puckering)이나 단추나 각종 부속의 상태 등을 소비자 입장을 염두에 두고 검사한다. 이들 검단, 검품에서 샘플의 발취량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전수 검사를 할 수도 있다. 전수 검사는 제품 전수를 검사하게 되므로 많은 인력과 시간과 숙련을 필요로 하며, 수입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에 관한 한 완전 무결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안심할 수 있다고 본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엄격하고 꼼꼼한 검사를 거쳐 중국 섬유 제품을 수입하므로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에 걸맞는 품질 수준은 안돼도 큰 하자없이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통 수준의 품질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섬유제품검사제도는 일본과는 달리, 주문자 또는 구입자측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보통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탈리아에서는 주문자 또는 구입자가 생산공장에 직접 가서 생산공정이나 출하 전에 검사하게 되어 있다. 생각해보면 주문자, 구입자 또는 사용자가 생산된 제품의 품질이나 수량 등을 직접 확인하므로, 사후에 불평이나 클레임이 생길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주문자, 구입자가 바로 수요자나 사용자가 아닐 수도 있고, 섬유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도 있어, 제3의 전문기관에게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의뢰비가 소요된다. 검사가 끝나 합격한 섬유제품이 생산 공장 밖으로 출하되면 생산자는 모든 책임이 완수되어, 그 후로 발견된 모든 사고나 불량품에 대한 책임은 주문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일본식 검사제도를 확립하지 않으면, 불량품이 이탈리아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

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탈리아의 니트 산지 “칼피”지역의 어패럴 업자들은 구입하려는 섬유제품의 검사관리가 편한 구동구권(舊東歐圈)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탈리아가 수입할 섬유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는 나라로서는 루마니아가 가장 많다. 이 나라는 동(東)로마 제국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나라로서 인구의 반 정도는 이탈리아어가 통하며, 물가나 인건비가 싸고 제조원가도 싸다. 루마니아를 비롯한 구동구권의 여러 나라들은 개발도상국가들로서 섬유공업이 발전 도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이탈리아의 섬유공업이 차츰차츰 이들 나라들로부터 압박을 받게 될 것 같다. 이미 그런 징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칼피”생산지구의 어떤 염색공장은 4년 전에는 종업원이 2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절반으로 줄었다. 이 공장은 1990년대 전반에 인도에 염색 공장을 설립하고, 범용성(汎用性)이 큰 규격의 니트포를 염색 가공하여, 유럽 시장에서 이익을 올리는 방법을 실현하고 있다. 이탈리아 내에서만 생산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적자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이 염색공장은 글로벌(global)화 전략을 다른 기업들보다 앞서서 실현한 것이 효과를 보여 경영부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